

「칸디」思想研究, 自我로 超越하여 愛他主義에(終)

朴魯哲

(三)『칸디』人格 續

다음으로 『칸디』主義에 對하여 한 마디 들고자 한다.

일즉 露書亞에서 『레닌』主義로 蘇露聯邦을 形成한것은 그 民族의 環境과 그 時代의 傾向에 依하여 新奇한 效果를 내인것처럼 또는 中國서 『孫文』의 三民主義로 旗標를 삼아 新世界로 動向함은 이역 그 民族의 環境과 그 政治的 覺醒에 依하여. 장차 그 結果를 보이는 것처럼 印度民族의 眞正한 『스와라지』를 企待함은 『칸디즘』으로 그 結果를 顯著이 나타내리라고 보는 바, 이는 印度敎의 集團力과 또는 『사티아·그라하』精神에 依하여 『칸디』主義를 拋棄하라 할 수 업는 것이 아닌가 한다. 이러타면 印度民族에게 適合한 『칸디』主義는 印度民族以外의 다른 民族에게는 별로 必要가 있다고는 보지 않는 것처럼 蘇露의 『레닌』主義는 蘇露民族에게 適合한것으로서 그 民族以外의 特殊性을 띄운 民族(例컨대 朝鮮과 가튼 處地에 잇는 民族)에게는 何等의 現實性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가령 朝鮮特有의 어느 主義가 잇다하자 이는 그 民族의 環境과 處地를 달리한 他民族 에게는 何等의 必要로 되어 잇지 안흠 이 아닌가? 이리하여 朝鮮民族에게는 朝鮮主義가 必要한것처럼 中國 民族에게는 三民主義가 必要할것이오. 印度民族에게는 印度의 特有的 非 協同的 無抵抗主義가 適合하다고 본다. 그러나 無抵抗主義가 東洋人중에도 特히 印度民族에게 必要하니만치 이를 朝鮮民族에게 試用한다. 假定하면 이는 그 民族의 特有性을 否認하는대서 그가튼 謬誤의 意見을 發함에 지나지 안는가 하는 생각도 든다. 이럼으로 각각 그 民族의 政治的 覺醒, 時代的 慾求, 文化的 特色, 宗教的 團結如何에 依하여 그 運動의 方向과 그 主義의 色彩를 鮮明히 決定할 수 잇는 것이 아닌가 한다. 이로보아 印度의 『칸디-즘』은 印度 民族의 宗教的 集團과 그 文化的 特色 또는 그 時代的 慾求에 依하여. 가장 必然性이 豊富하다고 본다.)

마감으로 『마하트마·싼디』의 宣言중에 特히 『그야—라티·나뽀지뽀』紙에 掲載된 死의 恐怖의 一節를 鈔譯하여 印度『스와라지』精神을 發揮하는데 一 標語로서의 一讀할 보람이 잇슬가 하여 적는다.

『나는(싼디)「스와라지」(完全한 自治)意義의 하나로서는 死의 恐怖를 던져 버리라는 것이니, 死의 恐怖에 依하여 움지기는 그 國民은 「스와라지」를 成就할 수 업다. 設使 成就한다 이르더라도 그를 保持할 힘이 업다. 亞刺比亞 人과 『관산』人은 그 親戚이 죽어도 決코 울지 안흐며 『포아』의 女人들은 恐怖心이 全히 업스매 『포아』戰爭으로 因하여 幾千의 젊은 女性들이 寡婦가 되었지만 그들은 그 夫와 子의 死에 對하여야는 問題도 삼지 안는다. 오직 祖國의 名譽로만 불 썬이다. 祖國이 저들에게 奴隸로 되었거든 그 夫와 子의 죽 음이야 말할 것이 잇스랴. 그러나 그들은 他人(敵)을 殺害하지 안나니, 自己의 죽음을 辭讓치 안는 民族을 무엇으로 比하랴. 이가튼 民族은 世界人의 欽仰하는 對象이다. 그들은 곳 地上의 鹽泉이다. 「스와라지」를 爲하여 殉死한 者의 太半은 나희 젊은 少年들이다. 『아리갈』에서 殉節한 사람들은 거의 다 二十歲 以下의 少年들이다. 그들은 곳 無名의 少年이다. 만약 政府가 射擊하 게 되는 境遇에 이르면 이번에는 第一 流의 사람들의 最高의 犧牲을 내일 그 機會를 捕捉하여만 되겟다. 이럼으로 祖國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『死』『入 獄』 그밖에 이와 類似한 災禍에 對하여 覺悟하지 안 할수 업스니, 그 勇敢한 者는 입술에 微笑를 띄우면서 라도 歸를 迎接하게 된다. 우리는 不道德한 行爲로 因하여 死와 入獄을 迎하는것이 아니다. 政府의 彈壓的 法律에 反抗하 는대 이르러 그 絞首臺上에 오르지 안흐면 안 된다』라고.(尾)

(無比의 大聖 『싼디—』氏에 對한 그 思想을 이적은 붓으로 拙論함에 미쳐 그 冒□의의 畏懼함은 이로 비길대 업다.)